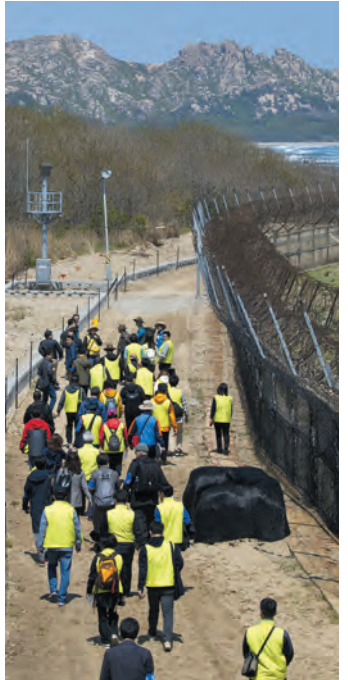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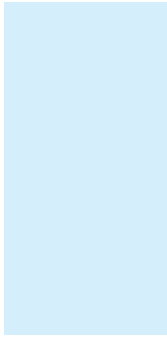




특집 \_ 10월 한인회장대회,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 높이는 방안 논의  
화제 \_ 문 대통령 “난관 앞에서 잠시 숨 고르며 함께 평화의 길 찾아야”





## 재외동포 역사 정리하고, 생활사 자료수집 서둘러야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이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3·1 운동 이후 많은 독립지사들이 해외로 망명하였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재외동포들은 힘든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주셨습니다.

박물관에서는 해외에 남은 독립운동가 후예들의 사진전도 함께 열고 있습니다. 그 사진 속에 모진 세월을 이겨 내고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 여러분의 흔적과 오늘날의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민 1세대들은 고령이 되거나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마다 이주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역사는 기록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민 1세대가 가지고 떠났던 문서자료와 생활용품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 자료들이 영원히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재외동포재단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앞으로 재외동포들이 소장하고 있는 생활사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에 함께 나서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 해외이주의 역사를 정리하여 기록하고 전시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상태가 좋지 않은 물건과 기록들은 보존처리를 잘하여 후세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창**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04



06



15



02 권두언	재외동포 역사 정리하고, 생활사 자료수집 서둘러야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04 특집	10월 한인회장대회,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 높이는 방안 논의
06 화제	문 대통령 "난관 앞에서 잠시 숨 고르며 함께 평화의 길 찾아야"
08 기획 1	종교 뛰어넘어 美동부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 뉴욕한인교회, 역사기념관으로 재건축
10 기획 2	고려인 8천여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활약하는 하바롭스크 동포사회
12 글로벌 코리안	파라과이 정착기 '지구 끝에서 던지는 이야기' 펴낸 명세봉 회장 8월 시카고 학술대회 준비하는 오준석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차기 회장 건립 기금 200만 달러 추가 기부한 재미동포 홍명기 이사장
14 한민족 공감 1	"한미동맹은 운명... 북한 문제 역대 가장 긴밀히 공조"
15 한민족 공감 2	판문점선언 1주년 맞아 美·獨 등 동포사회 '인간띠 잇기' 행사
16 동포소식	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 강원 정선서 열려... 74개국 800여 명 참가 외
19 동포 캘린더	싱가포르 한인회 청년창업지원센터 문 열어 외
20 유공동포	'디아스포라 문학의 선구자' 독립운동가 조명희 선생
21 지구촌 통신원	"미주 한인인민사 육성 기록한다"... 김영옥연구소 구술 프로젝트
22 OKF 뉴스	태풍에 파손된 사이판 한인회관·한글학교 복구 완료 외
23 동포문학	알감자 조림 유려(중국) 동포문학상 시 부문 가작
24 재단공지	2019년도 교사인증과정 운영 안내 외
26 기고문	재일동포의 조국 사랑 이광형 서울대 재외동포교육지원연구센터 자문위원장

발행인: 한우성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10월 한인회장대회,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 높이는 방안 논의

한민족네트워크 기반 조성 방안도 협의... 운영위, 올해 대회 기본계획 확정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10월 2~5일 서울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열리는 '2019 세계한인 회장대회'는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한민족네트워크 기반 조성과 740만 재외동포와 80만 국내 체류동포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재단은 4월 23~26일 백두산 인근 중국 지린(吉林) 성 크라운프라자호텔에서 대륙별 한인총연합회장과 지역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한인회장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대회 결과를 보고받고 올해 대회 기본계획과 세부 프로그램 등을 확정했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올해 대회 공동의장을 맡은 박원우 재중국 한국인회장, 강인희 러시아·CIS지역 한인회총연합회장과 여건이(일본), 백승국(대양주), 심상만(아시아), 유제현(유럽), 김요진(중남미), 주점식(캐나다) 한인회총연합회장, 강동호(대양주·파푸아뉴기니), 김민선(뉴욕) 전수연(LA), 정우영(중국), 국중열(몽골), 김점배(아중동·오만), 송천수(영국), 오용

호(오사카), 표성룡(중국·조선족), 정명선(캐나다) 지역회장 등 18명의 운영위원, 전 공동의장인 오공태, 남창규 고문, 재외동포재단 오영훈 기획이사 등이 참석했다.

## 운영위,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맞아 백두산 인근 중국 지린 성에서 회의

운영위원들은 올해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과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대회 기간 지역 내 한인회장 간 교류는 물론, 타 지역 한인회장 간 네트워크 강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또한, 각 연합회와, 지역별로 시행되고 있는 재외동포 차세대 사업과 공공외교 활동 사례들을 공유하고, 지역을 넘어 한인회 간 상호 교류하고 벤치마킹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세계한인회장대회 1차 운영위원회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재외동포들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백두산에서 개최됐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운영위를 백두산에서 개최한 것은 '2019년 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으로,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재외동포의 염원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계한인회장대회는 국외에서 현직 지역 한인회장과 대륙별 한인회







4월 23~26일 중국 지린(吉林) 성 백두산에 있는 크라운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 세계한인회장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각 지역 운영위원들은 2019 세계한인회장대회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합회 임원 약 400명과 국내에서 국회, 정부, 유관기관, 민간단체 및 국내 동포단체장 약 10명 등 500여 명이 참가한다. 재단이 마련한 대회 중점 추진 계획은 동포사회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보교류와 참가자 간 소통 프로그램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통일, 청년실업 등 모국 현안에 대한 동포사회의 관심과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도를 조망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매개체로서 재외동포의 기여 가능성을 부각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대회 참가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참가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원활한 현장대응 방식으로 대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륙별 지역분과 주제 토론과 전체회의가 열리고 한인회 운영 우수사례를 선정 발표해 모범한인회는 시상한다. 이밖에 정부 유관부처 관계자가 재외동포정책, 재외국민보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국적법, 병역제도, 소득세법, 재외선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설명하는 '정부와의 대화'와 지역별 한인사회가 당면한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한인회장들은 '제3회 세계한인의 날'(10월 5일) 기념식에도 참석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회 기간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장학금을 모금해 '글로벌한상드림'에 직접 전달한다.

참가자 접수일정은 6월 13일(한국시간)까지, 관할지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격은 10월 2일 기준, 현직 한인회장 및 대륙별 한인회연합회 회장이며, 현직 한인회장이 불참하면 동일단체 소속 임원의 대리 참석도 가능하다.

### 운영위 참석 전 세계 한인회장들, 운동주 생가 찾고 엔지시 동포단체장들과 만찬

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회 개최 하루 전날인 4월 23일 지린

성 룡징(龍井)의 운동주 시인 생가와 독립운동가 김약연 공덕비, 명동학교 옛터를 방문했다. 한우성 이사장은 "운동주 생가 방문은 재외동포사회가 낳은 민족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운동주 시인의 삶과 시를 돌이켜 봄으로써 재외동포들이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모국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정 마지막 날인 4월 25일 운영위원들은 굿은 날씨에도 백두산 장백폭포를 찾았다. 이날 저녁 박원우 공동의장 주최로 엔지(延吉)시 카이로스 호텔에서 열린 만찬에는 리성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장, 김삼열 연변한국상회장, 김진경 연변과학기술대학 총장, 전규상 길림천우건설그룹 회장(리딩 CEO)이 참석해 유대관계를 강화했다. 김삼열 회장은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되면 연길 이곳이 중심이 될 것이다. 연길에 사는 동포가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곳을 방문한 전 세계 한인회장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참]**

1. 룡징(龍井) 향일유적지를 찾은 운영위원들. 명동촌 운동주 생가, 김약연 공덕비, 송몽규 옛집, 명동학교 옛터 등을 방문했다.
2. 백두산을 방문한 운영위원들 단체 사진. 이번 운영위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재외동포들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백두산에서 열렸다.

# 문 대통령 “난관 앞에서 잠시 숨 고르며 함께 평화의 길 찾아야”

## 4·27 정상회담 1주년 메시지 “함께 가야 하기에 천천히 오는 분들 기다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7일 “때로는 만나게 되  
 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  
 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통일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개최한 ‘4·27 정상회담 1주년’ 기념 문화공연에  
 서 상영된 영상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길이기  
 에, 또 함께 가야 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모  
 두, 또 남과 북이 함께 출발한 평화의 길”이라며  
 “큰 강은 구불구불 흐르지만 끝내 바다에 이른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이 햇수를 거듭할수록 우  
 리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 함께 살아가는 한반도를  
 만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메시  
 지는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 담판 결렬 후 북미 간 비  
 핵화 대화의 교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속도가 더  
 디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자는 당부의 뜻  
 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고,  
 한반도를 넘어 대륙을 꿈꿀 능력이 있다”며 “우리  
 는 이념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졌으며, 공  
 감하고 함께해야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것  
 을 너무 잘 안다”고 말했다.

### “도보다리 산새들에게도 안부 묻는다”… 김정은 위원장·北 주민에게도 인사 전해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은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다”면서 “남북이 비무장지대 GP(감시초소)를 철  
 수했고,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  
 다. 아울러 “서해 어장이 넓어지고 안전해졌다”며



1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이 항상 만나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준비도 마쳤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역사적 선언의 장을 열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  
 을 다 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도보다리 산새들에게도 안부를 물어본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주민에게도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 문 대통령, 獨 일간지 기고문 통해 ‘평범한 사람’… 포용, 평화 강조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2주년(5월 10일)을 앞두고 7일 공개된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퐁(FAZ)’ 기고문을 통해 한국 민주주  
 의의 현주소와 문재인 정부의 비전을 상세히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국가’라는 인식을 고  
 스란히 드러내면서,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내  
 비쳤다. 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 세 가지  
 사건으로 3·1운동과 광주 민주화 운동, 촛불혁명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들의 공통점으로 '평범한 시민'이 이 중심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3·1운동에 대해 "100년 전,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모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나무꾼, 기생, 맹인, 광부, 머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앞장섰다"고 떠올렸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국가폭력에 맞선 사람들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했고, 촛불혁명을 두고도 "촛불혁명의 영웅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적 힘"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 그중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향후 국정운영의 바탕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특히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왔음에도, 이제껏 특권층에게 성장의 과실이 몰리며 평범한 사람들이 소외됐다는 문제의식도 엿보인다. 또한, 앞으로도 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에 매진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평범한 사람을 위한 국가'를 역설한 문 대통령은 이를 떠받칠 기둥으로 '항구적 평화'와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가치를 제시, 양대 가치를 중심으

로 정책을 꾸리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우선 '항구적 평화'의 경우, 문 대통령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평화를 강조하며 신(新)한반도 체제로의 전환을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분단의 역사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눈물과 피가 얼룩져 있다. 촛불이 평화로 가는 길을 밝히지 않았다면 아직도 평화를 향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을 것"이라고 떠올렸다

문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국가'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질서로 제시한 것이 '포용'이다. 문 대통령은 "평범한 사람의 일상이 행복할 때 한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하다"며 "포용국가는 국가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결실을 골고루 누리는 나라"라고 규정했다. [\[장\]](#)

1.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메시지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2. 판문점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남북 정상 이 처음 조우한 군사분계선에서 미국의 첼로 거장 린 하렐이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 1번을 연주하고 있다.
3.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인 4월 27일 시민들이 강원도 고성군 'DMZ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
4. 문 대통령이 영화배우 류준열 씨와 이날 오후 고성군 DMZ 평화의 길에 솟대를 설치해 맺말을 부쳐하고 있는 모습.

# 종교 뛰어넘어 美동부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 뉴욕한인교회, 역사기념관으로 재건축

## 3·1절 2주년 행사 뒤 맨해튼 북부에 마련... 나라 잃은 한 달랜 곳

**이**제에 저항하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2년 후인 1921년 3월 2일 저녁, 미국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 스퀘어에서 한 블록 떨어진 43번가의 신축건물 '더 타운 홀'(The Town Hall)에 추적추적 내리는 빗줄기를 뚫고 100여 명의 한인이 속속 모였다. 당시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이 수십 명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미 동부권 한인들이 거의 모두 모인 셈이다.

서재필 박사는 3·1운동 2주년을 기념하는 '한인연합대회'의 개최를 선언했고 '기미 독립선언서'가 영문으로 낭독됐다. 한인뿐만 아니라 현지 미국인들까지 무려 1천300명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윌리엄 E. 메이슨(일리노이) 당시 연방위원의 원도 자리에 참석해 한국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맨해튼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한인들의 목소리는 당시 미국의 주류 언론으로부터도 주목을 받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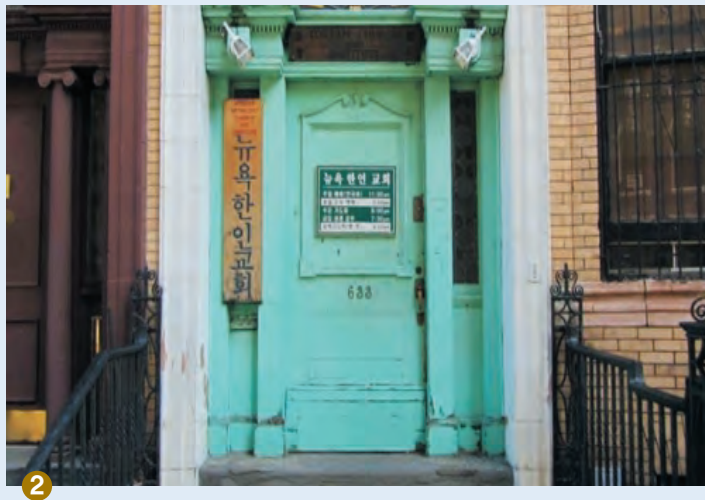
다. 뉴욕타임스(NYT)는 이튿날인 1921년 3월 3일 자 2면에 '메이슨 의원, 일본의 한국 침략을 맹비난하다'(Mason raps Japan for piracy in Korea)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메이슨 의원은 일본의 침략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미국 연방정부에 한국의 독립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재필 박사가 사회를 봤고 헨리 정(독립운동가 정한경)이 첫 연설자로 나섰다. 대한제국 왕립 영어학교인 '육영공원' 교사로 활동하면서 고종의 외교 조연자 역할을 했던 호머 헐버트 박사도 연설자로 나섰다고 NYT는 전했다.

### 한인연합대회로 결집된 '재미동포의 힘'으로 뉴욕한인교회 마련

2년 전 3·1운동의 열기를 되살린 한인연합대회는 재미동포의 힘을 결집하고 독립 의지를 다지는 원동력이 됐다. 한 달여 뒤 한인연합대회를 주도한 동포들은 맨해튼 북부의 컬럼비아대와 맞닿은 115번가에 4층짜리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미국 동부지역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거점이자, 수많은 동포가 나라 잃은 슬픔을 나누고 독립 의지를 키웠던 뉴욕한인교회(The Korean Church





and Institute)다. 컬럼비아대 유학생이었던 조병욱 등이 당시 민족공동체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고, 종교를 뛰어넘는 활동을 염두에 두고 교회의 영문 이름에도 'Institute'를 붙였다.

일제강점기 민족 지도자들이 뉴욕을 찾았을 때는 어김없이 뉴욕한인교회로 향했고, 3층과 4층에 마련된 숙소에 투숙했다. 교회에서 동지를 만나 결의를 다지고 독립을 위한 전략도 다듬었다. 작곡가 안익태가 애국가를 완성한 곳도 이 교회로 알려졌다. 당시 뉴욕한인교회 김준성(존 스타 김) 목사가 '한국 국가'(Korean National Anthem) 영문악보를 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익태가 사용했던 에머슨 피아노는 교회 지하에 보관돼 있다. 1945년 해방까지 이곳을 무대로 삼은 독립운동 단체만 10여 개에 달했다.

뉴욕한인공동회 · 한인공동회중앙위원회 · 재미조선문화회 · 근교회 · 미주동부 대한인부인회 · 조국광복사업후원회 · 뉴욕재민동포옹호회 등 7개 단체가 창립됐고, 국민회 뉴욕지방회 · 동지회 뉴욕지부 · 흥사단 뉴욕지부 등 6개 단체가 뉴욕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한국 유학생들이 만든 '한국학생회보'(The Korean Student Bulletin)과 '자유한국'(The Free Korea), 삼일신보, 우라키 등의 잡지 · 신문도 이 교회에서 편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조지워싱턴브리지 건설 현장을 비롯해 뉴욕 일대에서 막노동하면서 조국에 돌아갈 날을 그리워했던 노동자들도 이 교회에서 시름을 달랬다. 꼬깃꼬깃해진 달래를 호주머니에서 꺼내 독립운동자 금으로 건네기도 했다.

### 뉴욕한인교회, 재건축 작업 중... 독립운동 역사성 보존에 초점 맞춰 진행

컬럼비아대를 뒤로하고 115번가 내리막길을 따라 100m가량 내려가면 뉴욕한인교회 부지가 나온다. 재미 독립운동가들의 '망국의 한(恨)'을 달랬던 교회 건물은 노후화로 재건축에 들어간 상태다. 기존 건물은 1800년대 지

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보 담임목사는 "뉴욕한인교회는 종교시설의 의미를 뛰어넘어 미국 동부 독립운동사의 중심점"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작업도 독립운동의 역사성을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기존 층수를 유지하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구조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건물 앞쪽의 외벽은 최대한 기존 원형을 보존하는 동시에 1층에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물품과 사진, 자료 등을 보관하는 '역사 기념관'이 들어서게 된다. 그 외에 신축건물의 구성구석에 미주 독립운동을 되새기는 공간이 마련된다.

현재 한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과는 다소 떨어져 있는 데다 주차공간도 여의치 않다 보니, 재건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이전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없지 않았다고 한다. 이용보 목사는 "이곳은 독립운동가들의 숨결을 간직한 역사의 현장"이라며 "이곳을 독립운동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유지 · 발전시키는 게 저의 임무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장]**

1. 1921년 3월 2일 3·1운동 2주년 기념식 '한인연합대회가 개최된 뉴욕 맨해튼 43번가의 '더 타운 홀'(The Town Hall).
2. 재건축 이전의 뉴욕한인교회 정문. (출처: 뉴욕한인교회 홈페이지)
3.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에 들어간 뉴욕한인교회. 일제강점기 미국 동부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다.
4. 뉴욕한인교회 이용보 담임목사가 재건축 이후의 내부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3



4

# 고려인 8천여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활약하는 하바롭스크 동포사회

독립운동가 활동무대였으나 역사 기억할 자취 거의 남아있지 않아



1



2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의 중심도시 하바롭스크 시 인구는 61만여 명이다. 한반도 8배 면적의 하바롭스크 주에는 143만여 명이 살고 있다. 이 가운데 고려인은 8천15명(2017년 외교부 발표 기준)으로 민족으로는 네 번째로 많다. 재외국민은 영주권자 6명, 일반체류자 56명, 유학생 30명 등 모두 92명이다.

하바롭스크 거주 고려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사할린 출신 한인이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면서 광복을 맞게 되었으나 사할린에 있었던 한인은 무국적자가 되었다. 통행증을 받아야만 이동이 가능했고, 그마저도 불가능한 사람

들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사할린 거주 한인에게 북한 국적을 주면서 북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회유하였고, 실제로 많은 한인이 북한으로 갔다. 1960년대 초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한인들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베리아 등 러시아 대학교로 진학하였고, 하바롭스크의 경우도 1960년대를 지나면서 사할린 출신 한인이 대거 사할린을 떠나 이주를 하게 되었다. 1970년대까지도 무국적자로 사할린에서 체류한 한인이 많았다. 그러나 무국적자의 자녀들이 대학진학 등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자식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두 번째 부류는 1993년 당시 열린 러시아 대통령이 강제이주정책 사과문을 발표하고 연해주 재이주 정책을 펼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던 많은 고려인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지역으로 돌아왔으며, 하바롭스크로도 많이 이주했다. 극동 러시아 거주 고려인은 1937년 시작된 스탈린 강제이주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2년에 걸쳐 강제로 이주당했으며 그 수가 약 17만여 명에 달했다.

하바롭스크 고려인들은 빈부 격차가 크다.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는 반면에 2016년부터 시작된 루블화 폭락으로 인해 F-4(재외동포)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일하러 가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고려인들의 경





3

우 3, 4세대로 넘어오면서 한국어 구사에 문제가 있다. 부모들이 러시아어를 못해서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를 고수해야 하지만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한국보다 러시아어를 강조하게 된 것도 한 이유다.

### 고려인단체, 전통문화 보전에 힘써... 한인회도 김장하기 행사에 고려인 초청

하바롭스크에는 고려인 단체인 '극동시베리아고려인단체협회'와 재외국민단체인 한인회가 있다. 극동시베리아고려인연합회 백규성(69) 회장은 "고려인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근면해 주 정부와 시 정부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조들도 자랑스럽지만, 우리 후손들도 공무원, 주의회 의원, 대학교수, 의사, 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으로 활약하고 있죠"라고 전했다. 극동시베리아고려인단체협회에는 이산가족협회, 노인회, 청년회 등이 소속돼 있다. 언어와 문화 등 전통을 보존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과 다른 민족들과 교류 친선을 도모하는 게 주요 업무라고 한다.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합동잔치를 열어 전통음식을 나눠 먹고 전통놀이를 즐긴다. 가장 큰 행사는 2차대전 종전 겸 광복절을 기념해 한국 국제휴먼클럽(총재 백은기)과 함께 꾸미는 고려인문화대축제다.

사할린 동포 2세로 건설사와 여행사 등을 경영하는 백 회장은 2004년부터 극동시베리아고려인단체협회를 이끌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극동협의회장을 지낸 이력도 있어 평창동계올림픽 단일팀 소식을 누구보다 기뻐했다.

하바롭스크한인회의 지해성 총무는 "하바롭스크는 겨울이 길어서, 한인 교회에서 김장할 때 고려인들과 하바롭스크 현지인들을 초청하여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설날에도 같이 웃놀이, 씨름, 한복입기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 총무는 하바롭스크에도 한류 열기가 뜨겁다고 전했다. 지 총무는 스무 살이 되던 2008년 부친의 추천으로 하바롭스크에 유학 왔고 지금은 고려인 3세인 부인, 딸과 살고 있다.

하바롭스크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아시아 최초로 사회주의 정당 '한인사회당'을 만든 곳이다. 이동녕·양기탁·안공근 등 신민회 출신의 우파 민족주의자, 이동휘·유동열 등 좌파 민족주의자, 김알렉산드라·오하묵 등 한인 2세 볼셰비키 등은 1918년 3월 하바롭스크에 모여 조선혁명가대회



4



5

를 열었다. 주요 안건은 한반도에서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 몇 달 전 10월 혁명으로 러시아의 권력을 잡은 볼셰비키 세력과 연대하자는 것이었다. 혁명 세력은 제국주의의 압제에 신음하는 약소민족의 해방을 목표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어 독립운동가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하바롭스크를 무대로 한 사회주의 독립운동사는 오래가지 못했다. 1918년 9월 하바롭스크가 백군의 수중에 떨어지면서 한인사회당 주역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백규성 회장은 "하바롭스크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 못지않게 독립운동가들의 열이 서려 있는 곳인데 자취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면서 "시 당국과 협조해 사라져 가는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만들고 젊은이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영웅담을 들려주겠다"고 밝혔다. [창]

1.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철도역사. 맞은편에 16세기 이곳을 처음 발견해 이곳 지명의 유래가 된 러시아 탐험가 하바로프의 동상이 서 있다.
2. 한인사회당 창당 주역들이 활동하던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기차역사.
3. 극동시베리아고려인단체협회 백규성 회장이 협회 심벌마크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심벌마크에는 러시아 국기 배경에 독도가 표시된 한반도 지도가 그려져 있다.
4. 극동시베리아고려인단체협회는 작년 2월 17일 고려인 동포들과 주 정부 사람들을 초청하여 한국의 설날 행사를 펼쳤다.
5. 블라디보스토크한국총영사관 주최 한국 영화제가 2017년 11월 18일부터 나흘 동안 스포스코 극장에서 열렸다.



파라과이 정착기  
‘지구 끝에서 던지는 이야기’  
펴낸 명세봉 회장

## “술한 고생 끝에 남미 최대 K-뷰티 매장 오픈해 뿌리 내렸습니다”

지구 반대편 남미 파라과이에서 42년째 정착해 사는 명세봉(59) 테라노바 백화점 회장이 자전적 에세이 ‘지구 끝에서 던지는 이야기, 파라과이 랩소디’를 4월 7일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2009년 펴낸 에세이집 ‘내 인생 파라과이’의 전면 개정판이다. 그는 책에서 17살의 나이에 부모와 함께 고국을 떠나 파라과이에서 뿌리를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한인 1.5세의 정착기이자 이민사라고 할 수 있다.

명 회장은 “유능한 군인이셨던 아버지는 젊은 시절 부귀영화를 누리다 사업에 연이어 실패하고 쫓기듯 파라과이에 이민했다”며 “그동안 편하고 쉽게 살아온 우리 가족은 파라과이에 도착하는 순간 후회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글을 시작한다. 파라과이에서도 부모의 빈번한 사업 실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다 부모가 유명을 달리란 슬픔, 20대 초반에 학업을 포기하고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애환 등을 털어놓는다. 이어 가가호호 방문해 옷을 파는 ‘벤데’ 행상을 비롯해 식당 아르바이트, 숯 판매, 야채상, 옷가게 등 닥치는 대로 20여 가지 일을 해야만 했던 과거도 회상한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을 영화 ‘빠삐용’에 나오는 ‘드가’에 비유하며 희망을 키웠다고 한다. 드가는 빠삐용이 악마의 섬을 끊임없이 탈출하려 할 때 돼지를 키우고 채소도 심으면서 척박한 섬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개척한다. 그는 일찌감치 파라과이에 눌러살기로 작정했다고 한다. 브라질과 국경을 맞댄 시우다드델에스테에서 ‘K-뷰티’를 전하는 대형 쇼핑센터인 테라노바 백화점을 오픈하면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다.

테라노바는 화장품·액세서리·미용·헤어·주방용품 등 한국산 500여 개 품목을 취급해 연간 7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남미에서 ‘K-뷰티’ 제품을 파는 매장으로는 가장 규모가 크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시우다드델에스테 지회를 창립하고 지회장을 맡아 활동하는 그는 현지 사회와 한인 동포사회 그리고 고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 “한미 양국 대기환경 한인 전문가들, 미세먼지 저감 대책 논의한다”

“한국은 창업팀도 많고, 지원도 많아요. 하지만 그에 비교해 성과는 미미하죠. 그래서 한국의 아이템과 미국의 마케팅을 합쳐 ‘조인트 벤처’를 만들도록 지원할 겁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오준석(58) 차기 회장은 ‘2019 한미과학기술 학술대회’(UKC 2019)에서 처음 선보이는 ‘창업 및 기업가 정신 심포지엄’에 대한 소개부터 했다. UKC 2019는 KSEA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공동주관으로 8월 14~17일 미국 시카고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한 스마트 과학, 공학, 보건’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오 차기 회장은 3월 12일 “창업 심포지엄은 학술대회 기간 내내 열





린다"며 "한국 중소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고, 재미동포 2세들이 고국에 들어와 창업하는 길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인트 벤처’ 창업에 따른 지원방안을 놓고 지혜를 모을 예정"이라며 "이 심포지엄은 서로 크로스하면서 윈윈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창업해 성공한 인사와 마케팅 전문가, 벤처캐피털 등을 초청해 네트워킹할 기회도 제공한다.

UKC 2019에서는 특히 한국의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를 놓고 미국과 한국에서 연구하는 한국인 대기 환경 공학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미세먼지 포럼'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또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 처리 방안을 도출해내는 '플라스틱 포럼'도 새롭게 기획했다. 오 차기 회장은 한양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유학차 미국에 갔고, UC 어바인에서 교통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2003년부터 웨스턴 미시간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해 4월 KSEA 차기 회장에 뽑혔으며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KSEA는 UKC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미리 회장을 선출해 준비를 맡기고 있으며, 재작년부터 재미동포재단과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는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 “이민 역사 이정표 될 한미박물관 건립에 기여할 수 있어 감사”

‘기부왕’ 홍명기 ‘M&L 흥 재단’ 이사장이 한인 이민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할 ‘한미박물관’ (Korean-American National Museum) 건립 기금으로 200만 달러를 기부했다. 한미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공동이사장이기도 한 흥 이사장은 앞서 2016년 56만 달러를 기부해 기부금 총액은 256만 달러에 달한다. 흥 이사장은 “116년 미주 한인 이민 역사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이정표가 될 한미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이민 1세로서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감사하다”고 5월 8일 소감을 말했다. 그는 1954년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정착해 산업·건축용 특수도료회사 듀라코트를 세워 부를 쌓았고, 2001년 사재 1천만 달러를 털어 밝은미래재단을 설립해 교육·장학사업을 펼쳤다. 폐교 위기에 놓인 남가주한국학원을 정상화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 동상 건립,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 항일 독립운동 성지로 꼽히는 LA 대한민국민회관 복원 등에도 앞장섰다. 모교인 UCLA에 난치병 연구 등을 위해 200만 달러를 기부, ‘홍명기 석좌교수직’을 개설했으며 LA 동부 라시에라 대학에도 100만 달러를 기부해 LA 동포사회에서 ‘기부왕’으로 불리고 있다.

한미박물관은 흥 이사장의 추가 기부로 건립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게 됐다. 건축 예산은 2천만 달러 규모다. 현재까지 모금액은 흥 이사장을 비롯해 한인들이 모은 기금과 LA 시 정부의 지원금 350만 달러를 합쳐 모두 1천100만 달러에 달한다. 또 캘리포니아 주의회 지원금 400만 달러도 곧 건립 기금으로 확보될 전망이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은 박물관 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고, 최근 주 하원 예술문화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미박물관은 LA총영사관 인근 2만 스퀘어피트의 부지에 3층 규모로 건립된다.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1년 8월 완공할 계획이다. **창**



8월 시카고 학술대회 준비하는  
오준석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차기 회장



건립 기금 200만 달러  
추가 기부한 재미동포  
홍명기 이사장



# “한미동맹은 운명... 북한 문제 역대 가장 긴밀히 공조”

## 이낙연 총리, 미 휴스턴 동포·지상사 대표 간담회에서 강조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8일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부보다 가장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한 이 총리는 텍사스주 휴스턴 시내 호텔에서 열린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을 통해 동맹이 됐다”며 “미국은 동맹의 나라가 몇 곳 있지만, 한국은 지구 상에 동맹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한미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며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늘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운명’이라고 말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와 관련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혜롭게 사태에 대처해 주셨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긴 통화를 하면서 한국 국민의 불안감과 궁금증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상태를 한방에 정리해 준 아주 생산적인 통화였다”며 “그런 두 정상 간의 통화 기저 위에서 다시 (한반도 비핵화 해법 등을) 모색하고 모종의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남미 콜롬비아 동포들 만나 “한미, 비핵화 노력 포기 안 해... 북도 동참할 것”

방미에 앞서 남미 콜롬비아를 공식 방문한 이 총리는 5월 4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과정에 국질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그리고 가야 하는 길은 평화와 공동 번영”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수도 보고타 시내의 한 호텔



이낙연 국무총리가 5월 8일 미국 휴스턴 포시즌호텔에서 휴스턴과 앨라배마주 동포들과 기업인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서 열린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이날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발사하며 '도발성'으로 간주할 수 있는 행동에 나선 가운데 한반도 평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총리는 “우리 시간으로 어제 북한이 동해 쪽으로 발사체를 쏘았다”며 “그 재원이나 성격에 대해 한미 양국이 분석 중이므로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도, 미국 정부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인 점, 북한 또한 그에 동참하리라고 굳게 믿는다는 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질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평화와 공동 번영이고, 그것을 위한 당연한 과정은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콜롬비아에는 우리 동포 1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원규 콜롬비아 한인회장, 우연학 지상사협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장**



# 판문점선언 1주년 맞아 美·獨 등 동포사회 '인간띠 잇기' 행사

뉴욕 맨해튼서 주유엔 남북대표부 인간띠 연결... 한반도 평화 염원

미국 뉴욕 맨해튼 도심에서 4월 27일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와 북한대표부를 연결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가 열렸다. 유엔본부 앞에 약 50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남북한 주유엔대표부가 인간띠로 연결되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이날 행사는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4.27 민(民)+평화손잡기' 뉴욕추진위원회가 개최했다. 뉴욕 일대 동포 등 약 200명의 참가자는 맨해튼 '1~2번 애비뉴 45번가'의 대한민국대표부를 출발해 한 블록 떨어진 44번가의 북한대표부까지 손에 손을 잡고 늘어섰다. 참가자들은 북한대표부로 이동하며 '아리랑'을, 북한대표부 앞에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열창했다.

주최 측은 인간 띠를 연결한 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염원을 적은 한반도기와 꽃다발을 대한민국대표부에 전달했으며, 북한 대표부 관계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북측에 대한 전달이 불발됐다. 주최 측은 북한대표부가 입주한 건물 현관 유리에 꽃다발을 꽂아놓는 데 만족해야 했다. 조원태 추진위원장은 추후 북한대표부에 한반도기 전달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 베를린 한북판서 '한반도 평화' 기원 인간띠

4월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도 '세계를 위한 한반도 평화통일 인간띠 잇기' 행사가 열렸다. 베를린의 한국 관련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한인 동포와 독일인 300여 명이 참석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했다. 참석자들은 독일 분단과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문에서부터 포츠다머 플라츠까지 850m 구간에 한반도 깃발을 들고 인간띠를 이었다. 인간띠를 잇는 과정에서 동포 풍물패가 흥을 돋웠다. 주최 측은 선언문에서 "전쟁과 분단의 어둠을 화해와 통일의 빛으로 바꾼 독일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브란덴부르크 광장에 세계인들이 모여 손에 손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강화



'4.27 민(民)+평화손잡기' 뉴욕추진위원회는 4월 27일 뉴욕 맨해튼에서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와 북한대표부를 연결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개최했다(위).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인간띠'를 이은 시민들.

에서 강원도 고성을 연결하는 DMZ 평화 누리길 500km 구간에서 열린 'DMZ(民)+평화 손잡기'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인간띠의 일원이 된 독일인 하르트무트(50) 씨는 "한반도에 대해 이전부터 관심이 많았다"면서 "베를린의 한북판에서 만들어진 이렇게 긴 인간띠는 독일인과 베를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 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 강원 정선서 열려... 74개국 800여 명 참가

강원지역 중소기업 · 청년 해외진출 모색... 3천560만弗 수출계약 성과



4월 24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월드옥타 주최 제21차 세계대표자대회 프로그램의 하나인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열렸다.

재외동포 무역인들의 모임인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 회장 하용화)는 4월 23~25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제21차 세계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74개국 146개 월드옥타 지회 회원 8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회원들은 강원도 중소기업과 지역 취업담당 관계자들에게 수출 상담을 통해 해외진출 길을 터주고 해외 취업 노하우를 알려줬다. 특히 강원도 우수기업 45개 업체, 한국수산회 소속('K.Fish' 국가브랜드 사용) 기업 10개, 월드옥타 연계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기업 26개 등 모두 81개 업체와 수출상담회를 열어 4천565만 달러의 상담을 했고, 이 가운데 3천55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청년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호주와 일본 지역에 어떻게 진출해야 하는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하용화 회장은 "재능있는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어 절망할 때 우리 월드옥타가 힘을 보태야 한다"며 "우리는 올해 200명의 목표를 넘어 300명을 해외에 취업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 잘하기로 소문난 월드옥타 가족들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모습에 감동했다.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경제적 이익'이라는 열매를 모든 참가자가 수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월드옥타는 10월 14~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그랜드 MGM 호텔에서 제24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개최한다.

## 쓰레기 줍고 페인트칠하고... 멕시코시티 한인들 '공동노동' 봉사

동포 · 주재원 등 150명 공원 정화 · 보수... 연내 4회 추가 진행



4월 26일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직원, 멕시코시티 시장을 비롯한 시 정부 장관과 관계자, 한인회 등 동포단체, 코트라, 지상사협의회 회원 등 150여 명이 차폴테펙 공원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이 공원시설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과 주재원들이 현지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자 '사회봉사 공동노동' 활동을 펼쳤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직원, 멕시코시티 시장을 비롯한 시 정부 장관과 관계자, 한인회 등 동포단체, 코트라, 지상사협의회 회원 등 150여 명은 4월 27일 시내 공원에서 '테키오'(Tequio) 활동을 했다. 테키오 한인 참여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내 중심에 자리 잡은 차폴테펙 공원 제3 지구에서 쓰레기를 줍고, 화초 심기, 페인트 도색 등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테키오'는 멕시코 원주민어 중 하나인 나우아틀어로, 주민들이 속한 사회에 기여하고자 대가 없이 노동이나 집단 봉사활동을 제공하는 '사회봉사 공동노동'을 말한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멕시코 전통 봉사활동인 테키오가 '두레, 계' 등 우리 고유의 협동 전통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 한인 사회가 테키오에 동참할 경우 양측의 좋은 전통을 공유할 수 있다고 판단해 행사를 마련했다.

세인바움 시장은 "한인 사회가 멕시코의 전통 미풍양속에 동참한 최초의 외국인 커뮤니티가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인들이 멕시코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높이 평가했다. 한인 각 동포단체와 지상사협의회, 공공기관 등은 대사관의 협조 아래 자체적으로 맡은 공원과 거리 등지에서 연내에 4회에 걸쳐 테키오 활동을 더 진행할 계획이다.



## 美 연방의회서 ‘중전선언 결의안’ 지지 확산… 28명째 서명

“한반도의 최종적인 평화 정착 달성 로드맵 제시하라” 미 정부에 촉구



미국 캘리포니아 주 39지구 길 시스네로스(민주) 연방하원의원이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지지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오른쪽은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사진·미주민주참여포럼 제공)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에도 한국전쟁 종전선언 결의안을 지지하는 미국 연방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5월 13일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에 따르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풀러턴을 포함하는 캘리포니아 주 39지구 길 시스네로스(민주) 연방하원의원은 이날 KAPAC 최광철 대표 등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지지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은 지난 2월 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 실리곤밸리를 지역구로 하는 로 카나(민주)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했다. 이로써 종전선언 결의안에 지지 서명했거나 서명하기로 한 연방의원은 한국계 앤디 김(민주) 의원, 아시아태평양 의원연맹 의장 주디 추 의원 등을 포함해 모두 28명으로 늘어났다.

최 대표는 “종전선언 결의안을 지지하는 연방의원이 늘어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의 외교적·평화적 해결을 위한 연방의회의 초당적인 협력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로 카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한반도의 최종적인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사자 간 상호적 조치와 신뢰구축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그러나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거나 북한을 합법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 멕시코 캄페체·메리다서 ‘에네켄 恨’ 달랜 ‘한국의 날’

기념식·축하공연·거리행진 열려… “선조들의 한 풀어줘 기뻐”



5월 2~4일 멕시코 유카탄반도에 있는 캄페체와 메리다 시에서 ‘한국의 날’ 제정식 및 기념행사가 열렸다. 한인 후손과 메리다 시민 등 1천여 명이 제물포 거리에서 시청광장까지 약 1km를 행진하면서 양국 국기를 흔들고 한국과 멕시코를 연호하며 한국의 날을 자축했다.(주멕시코 한국대사관 제공)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5월 2~4일 멕시코 유카탄반도에 있는 캄페체와 메리다 시에서 현지 정부와 함께 ‘한국의 날’ 제정식 및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5월 5일 밝혔다. 행사는 캄페체 시 한국의 날 제정 기념식 및 축하공연에 이어 메리다 시 한국의 날 제정 기념 리셉션 및 축하공연, 메리다 시 한국의 날 기념식 및 거리행진 순으로 열렸다. 엘리세오 페르난데스 캄페체 시장은 5월 2일 시민과 한인 후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특별 회의를 열어 한국의 날 지정 법안을 통과시키고, 한국의 날 발효를 선포했다. 캄페체 시장의 김상일 주멕시코 한국대사에 대한 명예 시민증 수여, 한국의 날 기념 동판 제막식, 축하공연 및 한식 시연 등도 개최됐다. 5월 3일 메리다 시에서는 한국의 날 제정 기념 오찬 리셉션에 이어, 전야제 행사로 유카탄 주 정부가 장소를 제공한 페온 콘트레라 주립극장에서 아리랑 공연이 열렸다. 다음날 메리다 시 제물포 거리에서는 한국의 날 기념식이 거행된 후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헌화식이 개최됐다. 한인 후손과 메리다 시민 등 1천여 명이 제물포 거리에서 시청광장까지 약 1km를 행진하면서 양국 국기를 흔들고 한국과 멕시코를 연호하며 한국의 날을 자축했다. 이번 행사는 주멕시코 한국대사, 유카탄 주지사, 메리다 시장, 캄페체 시장, 한인후손회장이 공동 주최자로 함께 준비했다. 대사관은 유카탄 주와도 한국의 날 제정을 위해 협의 중이며, 한국의 날 제정이 연내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한국의 역사·문화, 딱지 카드로 재미있게 배운다”

미 캘리포니아 다솜한국학교, 자체적 교육과정 개발



미국 서니베일에 소재한 다솜한국학교는 4월 13일, 한국 역사문화 교육과정 ‘역사문화 딱지 카드로 배우는 한스타일’ 네 번째 시간으로 ‘한국음악’ 수업으로 배우는 한스타일’ 네 번째 시간으로 ‘한국음악’ 수업을 진행했다. 징과 비슷한 소리를 내는 주방용구를 두들겨보는 학생 (사진·다솜한국학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서니베일에 소재한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4월 13일 한국 역사문화 교육과정 ‘역사문화 딱지 카드로 배우는 한스타일’ 네 번째 시간으로 ‘한국음악’ 수업을 진행했다. ‘역사문화 딱지 카드로 배우는 한스타일’은 다솜한국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과정으로, 한국 역사문화에 대한 설명을 딱지 카드로 만들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1탄 ‘한식’, 2탄 ‘한옥과 한지’, 3탄 ‘한복’, 4탄 ‘한국음악’ 등, 총 네 단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진행된 4탄 ‘한국음악’에 대한 수업은 여현주 선생님의 강의로 시작됐다. 학생들은 종묘제례악, 농악, 사물놀이, 판소리, 민요를 비롯해 난타까지 다양한 한국음악을 시청각 자료를 통해 배웠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사물놀이에 쓰이는 악기를 연주해보며 각 악기 소리의 특징들을 익히고, 가정에서 쓰이는 물건 중 사물놀이 악기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 물건을 찾아보기도 했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한국음악의 대표 장단인 세마치 장단, 굿거리 장단을 직접 무릎 장단에 맞춰 아리랑을 불러보며 익히고, 한국 전통 현악기와 관악기, 타악기 소리의 특징과 원리를 배우고 이와 비슷한 서양 악기를 찾아보기도 했다.

최미영 교장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수준별 학습지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 심화학습을 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음악의 역사와 특징들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다채로운 한국음악을 접하고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재외국민도 투표해야 힘이 세진다”... 재미 유권자 등록운동 시동

델러스 동포들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명 등록운동’ 선포



미 델러스 동포들의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 명 등록운동’ 선포 장면.

재미동포들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재외국민 유권자 연대’를 출범시켰다. ‘재외국민 유권자 연대 뉴욕본부’(회장 이경하)는 5월 8일 “750만 재외동포와 200만 재외국민 유권자의 하나 된 목소리를 한국 정치권에 전달해야 한다”며 가장 먼저 캠페인 깃발을 들었다. 이어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워싱턴D.C, 탬파베이, 올랜도 등지의 동포들도 발대식에 나설 예정이다. 델러스 한인회(회장 박명희)와 민주평통자문회의 델러스협의회(회장 유석찬)는 아예 ‘유권자 100만명 등록’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참정권 운동을 펼치고 있다.

유석찬 회장은 “재외국민 유권자의 힘이 세져야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다”며 “한인들의 권리와 권익을 증진하는 첫걸음은 ‘유권자 등록’에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4월 15일 치러진다. 재외 선거인은 선거 60일 전인 2월 15일까지 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관할지역 내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신고·신청이 가능하다. 2017년 치러진 대선 때 등록을 했다면 다시 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유학생과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 부재자’는 오는 11월 17일부터 재외선거를 신고할 수 있지만, 영주권자 등 재외 선거인은 선거일 60일 전까지 상시 등록 및 신청이 가능하다. [▶](#)





**광주고려인마을, '고려인 항일투쟁 역사유물전시관' 개관**

고려인 집단 거주지역인 광주고려인마을에 '고려인 항일투쟁 역사유물전시관' 이 문을 열었다. 광주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아)은 최근 광산구 월곡2동 행복센터 2층에 고려인 선조들의 항일운동 관련 사진과 서적, 육필원고 등 100여 점을 전시하는 역사유물전시관을 개관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고려인마을은 보유하고 있던 고려인선조 유물 2만여 점을 이 전시관에 임시 보관한 뒤 추후 역사박물관이 건립되면 전시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한인회 청년창업지원센터 문 열어**

싱가포르 한인회(회장 윤덕창)는 4월 11일 싱가포르 내 한인 청년 예비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존에 도서관으로 이용하던 한인회관 3층을 개조해 창업을 준비하는 한인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만들었다. 창업지원센터는 창업 관련 법률 자문과 강연회는 물론 청년 포럼이나 선배들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취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미동포 학생들 '한국 바로 알리기' 기자로 된다**

미국 내 1천200여 개 한국학교를 대표하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14개 지역협의회에서 각 1명씩 학생 기자를 최근 선발해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학생 기자단'을 결성했다. 오정선미 NAKS 회장은 4월 19일 "14명의 학생 기자는 한국어 수준이 고급 이상이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도 높다"며 "이들은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한국을 바로 알리고, 한국 관련 잘못된 정보를 찾아 언론에 알리는 동시에 바로 잡는 활동도 한다"고 말했다.

**재일동포 여성 국제구호 단체 '사랑의 나눔' 출범**

재일동포 여성들이 중심이 돼 국제구호 활동을 펼치는 봉사단체인 사단법인 '사랑의 나눔' (회장 김은천)이 4월 17일 일본 도쿄에서 출범했다. '사랑의 나눔'은 일제강점기 이주자와 그 후손인 '울드커머', 1980년대 이후 일본으로 건너간 신정부자를 뜻하는 '뉴커머'가 함께하는 단체로 25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회비와 독지가의 후원금을 모아 아프리카 잠비아와 중남미 아이티 아동을 돕는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과테말라서 동포 청소년 역량강화·진로상담 강연회**

주 과테말라 한국대사관은 5월 5일 200여 명의 동포 청소년들과 학부모, 차세대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포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와 진로상담을 위한 강연 및 멘토링 행사를 개최했다. 강연자로는 과테말라 육사를 차석으로 졸업하고 중남미 최초의 한인 여성 장교가 된 함사라 소위를 비롯해 사업가이자 과테말라 정계 차세대로 주목받는 주신기 노바코넥스 대표, 멕시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엄기웅(사진)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제3회 재외한인간호사대회 10월 서울서 개최**

대한간호협회는 제3회 재외한인간호사대회를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 재외한인간호사대회(회장 조영숙)가 주관하는 행사로 파독 간호사를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세계각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간호사가 초청된다.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한인으로 참가 희망자는 7월 31일까지 이메일(oknanurse@gmail.com 또는 shinhihan@gmail.com)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gkna.org) 참고.



한인회 · 한글학교 등 동포단체 행사를 소개합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소식을 이메일(prc@okf.or.kr)로 보내주세요

# ‘diaspora 문학의 선구자’ 독립운동가 조명희 선생

연해주에서 언론인, 작가로 활동하며 항일의식 일깨운 공로로 건국훈장 추서

**4월** 11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는 항일문학 창작으로 독립의식을 일깨운 공로로 올해 한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포석(抱石) 조명희(趙明熙·1894~1938) 선생 후손 등 독립유공자 후손과 가족 30여 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조명희 선생의 막내아들 조 블라디미르가 부친에게 추서된 건국훈장을 전달받았다.

고려인 문학의 아버지, diaspora 문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독립운동가 조명희는 충북 진천에서 태어나 소년기를 보냈고 서울로 올라가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으나 가난으로 중퇴했다. 이후 방황하다가 3·1운동에 참가해 투옥되기도 했다. 1921년 일본 유학에서 돌아와 창작 희곡 ‘김영일의 사(死)’를 순회공연해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받았고 1923년 ‘개벽’에 발표된 두 번째 작품 ‘파사(婆娑)’는 근대 희곡사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테마인 민족 해방과 인습 타파의 문제를 동시에 표현한 최초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1927년 ‘조선지광’에 발표한 대표작 소설 ‘낙동강’은 프로 문학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1928년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소련으로 건너가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 등지를 옮겨 다니면서 동



정부는 제100주년 3·1절을 맞아 뛰어난 항일문학 창작으로 독립의식을 일깨운 조명희(사진)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조명희 선생의 대표작 소설 ‘낙동강’ 초판 표지.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포 신문 ‘선봉’의 편집자로, 조선사범학교 교수로, 잡지 ‘노력자의 조국’ 주필 등으로 활동하면서 항일의식을 일깨우고 인재를 길러내는 한편 재소 한인 문학 건설에 힘썼다. 산문시 ‘짓밟힌 고려’, 장편소설 ‘붉은 깃발 아래서’와 ‘만주 빨치산’ 등을 집필했다. 그가 직접 가르쳤거나 영향을 끼친 강태수·리시연·문금동·최영근·김부르크 등이 고려인 문학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냈고, 현경준·김학철 등 조선족 작가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1937년 스탈린 정권이 고려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킬 때 사전 정지작업의 하나로 지도자급 인사 2천500여 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조명희도 9월 18일 일제 간첩 혐의를 쓰고 투옥돼 이듬해 5월 11일 총살됐다. 스탈린 사후 1956년 복권돼 누명을 벗었고 1958년 소련과학

원이 ‘조명희 선집’을 출간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나보이 문학 박물관에는 그의 딸 조 발렌티나가 주도해 1988년 조명희 기념실을 꾸며냈다. 중국 연변에서도 2001년에 연변포석회가 창립되어, 연변포석문학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충북 진천에는 2015년 포석 조명희문학관이 문을 열었다. 진천군이 약 30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건립했고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조명희의 차남 조 블라디미르가 20만 달러를 기부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970㎡(약 300평) 규모의 이 문학관은 전시실을 비롯해 문학 사랑방, 창작 사랑방, 문학연구실, 수장고 등을 갖추고 있다. 진천군은 1994년부터 매년 10월 포석 조명희 문학제를 열어 그의 항일 정신과 문학 세계를 기리고 있다. **창**



# “미주 한인 이민사 육성 기록한다”... 김영옥연구소 구술 프로젝트

도산 막내아들 · 올림픽 영웅 새미 리 박사 등 생생한 인터뷰 기록 쌓아

1900년대 초반 오렌지농장의 고된 노동부터 시작해 면면히 이어 온 미주 동포사회의 이민 역사를 ‘육성(肉聲)’으로 기록하는 프로젝트가 재미 한인 이민사 연구기관인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에서 시작됐다.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대학(UC리버사이드)의 UCR뉴스는 3월 28일 ‘미국이란 파이의 작은 조각, 그러나 거대한 영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UC리버사이드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장인 장태한 교수가 주도한 ‘미주 한인 구술 역사 프로젝트’(Korean American Oral Histories Project)를 소개했다.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는 독립운동가 김순권 선생의 아들로 로스앤젤레스(LA)에서 태어나 미군에 입대한 뒤 2차대전과 한국전쟁에서 아시아계 최초 전투대대장을 맡는 등 혁혁한 공을 세우고 예편 후 전쟁고아를 돌보며 인도주의를 실천한 전쟁영웅 김영옥 대령의 이름을 딴 연구기관이다. 지난해 LA 남부 오렌지카운티 고속도로 구간에는 그를 기리는 ‘김영옥 대령 기념 고속도로’가 생겼다.

이 연구소의 장태한 교수와 캐럴 박 연구원은 한인 이민사에 족적을 남긴 유명 인사 50여 명을 육성 인터뷰했다. 1992년 LA 폭동과 같은 역사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있고, 재미 한인사회에서 정치적 격변을 겪은 이들도 있다. 구술 프



1. 도산 안창호 선생 막내아들 램프 안



2. UC리버사이드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 장태한 소장.



3. 미주 한인 구술 역사 프로젝트.(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 홈페이지)

젝트 대상이 된 인물에는 특히 미국에서 13년간 생활하며 독립운동의 기틀을 닦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아들 램프 안(한국명 안필영)과 아시아계 최초로 1948년 올림픽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고(故) 새미 리 박사, 저명한 한국학자 보니 오 등이 포함된다.

캐럴 박 연구원은 “미주 한인인 미국이란 파이의 작은 조각이지만 미국 사회에서 깊고 의미 있는 역사를 만들어갔음을 육성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증오범죄가 판을 치고, 소수민족이 차별을 받는 현실에서 미주한인 구술 역사 프로젝트는 같은 나라에서 고

락을 함께하며 보편적 경험을 겪은 이민자의 삶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 있다고 연구소 측은 강조했다.

구술 프로젝트 홈페이지에는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조국에 헌신하는 길’이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이 적시됐다. 장 교수는 “한인 이민 1세, 그리고 이후 세대로부터 그들의 가족 배경과 경험에 대해 듣고, 그들이 어떻게 미국에 오기로 결심해서 어떻게 정착했는지를 생생히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인 구술 역사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했다. **[장]**

옥철 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 태풍에 파손된 사이판 한인회관 · 한글학교 복구 완료 재외동포재단, 수리비 전액 지원

지난해 태풍 '위투'로 파손된 사이판 한인회관과 한글학교가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으로 복구됐다. 5월 8일 사이판 현지에서 한인회관과 한글학교 보수 완공 기념식이 열려 오영훈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 임희순 외교부 주하와나출장소장, 장능식 사이판 한인회장, 홍차희 한글학교 이사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말 사이판을 강타한 태풍 위투는 주택 900여 채 등 건물을 파손했고 이로 인해 1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재단은 사이판 피해 현장을 방문해 동포사회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한인회관과 한글학교 복구를 위해 수리비 전액을 지원했다. 재단은 지난 2014년 화재로 전소한 미국 애틀랜타 한인회관 재건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지진으로 파손된 네팔 한글학교 복구도 도왔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이번에 복구된 한글학교가 차세대 한인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터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월 8일 사이판 현지에서 열린 한인회관과 한글학교 보수 완공 기념식. 왼쪽부터 김진순 전 사이판 한글학교 이사장, 김의숙 사이판 한글학교 초대 이사장, 오영훈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 임희순 외교부 주하와나출장소장, 홍차희 사이판 한글학교 이사장, 노중옥 사이판 한글학교 교장, 장능식 사이판 한인회장.

## 재단,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 정진수)와 5월 2일 제주 서귀포시 재외동포재단 사옥에서 한상네트워크 활성화와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재외동포와 국내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과 세계한상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상기업과 국내 기업 간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협력, 재단의 한상넷(hansang.net)과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이임스타즈(imstars) 연계 협력 사업 등을 공동 추진기로 했다.

한 이사장은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 향후 국내외 경제인들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8차 세계한상대회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남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재외동포재단은 5월 2일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한 업무협력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오영훈(왼쪽에서 3번째) 재단 기획이사, 정진수(왼쪽에서 4번째)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가 참석했다.





# 알감자 조림

유려(중국) 동포문학상 시 부문 가작

어느 시골동네의 한두어 뿌리에  
함께 주렁주렁 매달려있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흙 속에서 뽑힐 때 난 생채기들일까  
감자 자루에 담겨 올 때 서로 부대긴 흔적들일까  
너희가 지나온 시간들  
너희가 그 무언가를 만났던 곳엔  
이렇게 자리가 나는구나  
아니, 그게 아프다면…  
상처가 난 흔적조차 너희는 서로가 참 닮았다고 해야 할까

오늘 너희들 한 가마속에서 담고  
간장 많이, 소금 짝끔  
달큰한 물엿도 넣고  
파도 넣고  
빨간 고추, 하얀 마늘 다 넣고  
속 깊은 곳까지 한번 푹 삶아지길 바라본다.

그 아팠던 곳에  
간장도 들어가고  
고춧물도 들어가고  
더 아프겠지만  
나는 알지…  
그게 너희들 더 맛있어지는 과정이라는걸

그 누군가의 모난 곳에 맞았던 곳에  
그래서 깊은 상처가 난 곳에  
더욱 많은 맛들이 우러들어  
결국 그게 진정한 맛으로 되지

한 가마 속에서 푹 익고 나면  
더욱 부드러운 가슴 속살을 보여주며 서로 으깨여지길  
그렇게 하얀 쌀밥과 어우러져  
내 가족이 모여 먹을 평범한 한끼가 되길 **창**



## 2019년도 교사인증과정 운영 안내

재외동포재단은 우수한 한글학교 교사 인력 양성을 목표로 전 세계 한글학교 선생님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9년도 교사인증과정”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 1. 과정 개요

#### 가. 운영 기간

2019년 5월 6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 기수별 운영(대한민국 시각 기준)

#### 나. 개설 과정

- 정규과정: 1단계, 2단계, 단축과정 A·B
- 활용과정: 1단계, 2단계, 3·4단계는 하반기 개설 예정

#### 다. 수강 비용: 무료

#### 라. 수강 대상: 스테디코리안에 등록된 한글학교의 소속 교사

- ※ 활용과정은 스테디코리안 회원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나 이수증은 발급되지 않으며, 아래 대상자는 첨부 서류 제출 시 정규과정에서 일부 과목이 면제된 단축과정을 수강할 수 있음
- 단축과정A 대상자: 한글학교 교사 맞춤형 온라인 연수과정 이수자
- 단축과정B 대상자: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 2. 수강 안내

가. 신청 및 수강 일정: 기수별로 상이, 세부 일정은 하단 첨부 파일 참조

#### 나. 수강 절차:

스테디코리안(<http://study.korean.net>) 로그인 → ‘교사인증과정’ 메뉴에서 원하는 과정명 선택 후 수강신청 진행 → 수강 시작일부터 수강 기간 내에 [인증과정 강의실]에서 모든 차시 학습 및 평가 완료 → 기수 종료일부터 [인증과정 강의실]의 [이수증 발급] 버튼을 통해 이수증 출력

#### 다. 수료 및 이수증 발급 조건:

- 기수별 수강 기간 엄수(대한민국 시각 기준)
- 80% 이상씩 모든 차시 수강, 평가하기 완료
- 소속 한글학교에서 소속교사 승인 완료
- 기수 종료일부터 이수증 발급 가능

### 3. 문의

- 교사인증과정 질문/답변 게시판 또는 전용 메일(teacher@okf.or.kr)
- 교육사업부(jun@okf.or.kr, +82-64-786-0262)

###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 검은꽃

김영호(문학동네)

1905년 멕시코의 에네켄 농장으로 팔려간 한인 1,033명 중 11명의 이야기를 그려낸 장편소설이다. 한인 이민자들이 태평양을 건너 멕시코로 향한 일정부터 삶을 마감하기까지 모습을 담담한 어조로 그리고 있다. 역사적 상황들 속에서 모국을 떠나야 했던 그들의 삶의 기록을 소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다.



#### 유목의 땅, 유랑의 민족

이정화(코뮤니타스)

경상북도(사)인문사회연구소가 추진했던 해외동포네트워크사업 ‘세계시민으로 사는 경북인 2018,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편’의 결과물로 발간되었다. 이 책은 고려인들의 구술사 채록으로 구성되어있다. 1937년 강제이주의 아픔과 구소련 해체 후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겨낸 고려인의 이주정착사를 그들의 입을 통해 들어보며 그들이 지켜온 한민족 정체성과 민족문화를 확인해볼 수 있다.



# 2019년 2차(9기)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사업 지원자 모집

재외동포재단은 국내 청년의 글로벌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 2차(9기)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사업 지원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해외 진출에 관심있는 분들은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 및 모집 개요

### 가. 사업명:

2019년 2차(9기)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 나. 사업 목적

- 국내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기회 제공
- 차세대 한상 육성 및 한민족 경제영토 확장

### 다. 모집 개요

#### • 모집기간:

2019년 5월 21일(화) 00:00 ~ 2019년 6월 3일(월) 18:00

#### • 모집인원: 200명 내외

#### • 인턴기간: 6개월

#### • 모집분야: 디자인, 무역, 행정, 기술직, 서비스 등 한상기업 별 요청 직무

### 라. 추진 절차

- 모집공고: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모집공고
- 인턴지원: 인턴 지원서 작성 및 기업 선택 후 지원서 제출
- 자격심사: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참가자격 심사
- 기업심사: 기업별 서류&면접 심사

- 최종선발: 기업별 규정에 의거하여 최종선발
- 국내교육: 최종합격자 국내교육

## 2. 지원 자격

가. 만 34세(84.5.21 이후 출생자) 이하인 자로 최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 재학중인 자로 연수 종료 후 해외 취업이 가능한 자

※ 예외: 미국 J-1비자 가능자

나. 비자취득 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없는 자

## 3. 지원기간 및 방법

### 가. 지원기간:

2019년 5월 21일(화) 00:00 ~ 6월 3일(월) 18:00

### 나. 지원방법:

‘한상넷’ 홈페이지(www.hansang.net) 접속 및 회원가입 → 청년인턴십 페이지 이동 → 기업정보 확인 → 희망기업 지원하기 클릭 → 지원서 작성 후 제출하기 클릭

※ 참고사항: 1인 1기업만 지원 가능, 지원서 작성은 2019년 5월 21일부터 가능하나, 이력서는 사전 작성 가능(한상넷 → 청년인턴십 → 나의인턴십 → 이력서관리)

다. 문의: 재외동포재단 한상사업부 064-786-0287 또는 [gotogether@okf.or.kr](mailto:gotogether@okf.or.kr)



### 이카이노: 일본 속 작은 제주

조지현(사진집)

오사카에 가면 1960년대 일본 최대 조선족 밀집지역인 이카이노 마을이 있다. 현재는 지도상에 없는 마을로, 1920년대 오사카가 공업도시로 발전할 무렵부터, 제주에서 많은 사람이 돈벌이를 위해 이주했던 곳이다. 재일동포인 작가의 눈으로 찍은 사진을 통해 그 당시의 생생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타지에서 설움과 차별을 받았지만,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왔던 일상의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보자.



### 토론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박인기(한우리북스)

타지에서 모국의 언어인 한국어 기반 사고를 갖추어야 하는 동포들에게는 우리나라 말로 자기 생각과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한국어와 구조가 다른 현지 언어를 쓰는 동포들로서는 뜻과 구조를 파악하고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경쟁력을 의미한다. 이 책은 지식과 사고의 언어를 구조적으로 통합하여 토론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토론 능력에 대한 이해를 담았다.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구조적인 토론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재일동포의 조국 사랑



1945년 8월, 해방 후 일본에서 거주하던 한국인은 대부분 한국으로 귀국했고, 귀국하지 못한 한국인은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갈 것을 예상하고 자녀들에게 민족의 혼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일본 전국에 500여 개 민족학교를 설립하여 5만여 명(1948년 4월 27일자 아사히신문)의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 문화를 지도했다.

일본 정부의 조선인학교(민족학교) 폐교령에 대항하여 1948년 4월에 오사카와 효고에서 조선인과 일부 일본인 7,000여 명이 참가해서 격렬하게 저항한 한신 교육투쟁으로 발전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정식학교 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일본 전국에서 신청한 16개 학교 중에서 한 곳만 일본 정부가 정식학교로 인가했다. 1946년 4월에 제주도 출신 재일동포 1세인 조규훈 선생이 설립한 오사카에 있는 백두학원 건국학교이다. 조규훈 선생의 건학이념은 백두학원 창립 취지문의 “조국부흥의 주춧돌이 되자”에서 읽을 수 있다.

필자는 주일한국대사관 수석교육관 5년, 동경한국종합교육원장 5년, 그리고 정년 퇴직 후 대학에 석좌교수로 강의하던 중 민족교육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신 김성대 이사장님의 강한 요구에 의해서 2014년 4월에 교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면서 설립자 조규훈 선생의 조국에 대한 마음과 민족교육에 대한 정신을 조금이라도 소개하는 것이 30여년간 재외동포교육을 담당했던 자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여 그 많은 조국 사랑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945년 해방이 되고 한·일국교가 성립되고 1949년 1월에 주일대한민국대표부가 설치되었다. 1948년 후반기에 미국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안창호 선생 등과 함께 “대한인국민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했던 정한경 초대공사가 조규훈 선생에게 찾아와 한국 정부의 재정이 어렵다며 도움을 청하기를 대표부 설립에 필요한 자금 500만 엔만 있으면 최소한의 준비는 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1,000만 엔을 지원하여 주일대표부는 세이코(SEIKO)시계 본사 건물로 유명한 도쿄 긴자의 핫토리 빌딩 4층을 통째로 빌려 썼고 대표부 관저를 구입할 때도 300만 엔을 지원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다.

조 선생의 4남인 조명현 씨는 그 당시 교사의 1개월 치 월급은 150엔이었고, 히로시마에서 부산까지 오는 연락선 왕복 배삐가 50엔으로, 1948년에 1,300만 엔은 지금 환산하면 20억 엔(200억 원)을 조국을 위해서 기부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입고 싶어 하던 스커트를 사치스럽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던 아버지에게 항의했더니 “우리만 잘살아서 뭐하느냐, 모두가 좋아져야 한다”고 하셨다며, 그때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보니 그 신념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한, 조규훈 선생의 고향인 제주도 조천읍에 1950년 개교한 조천중학교가 있다. 조국 발전을 위한 길은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밖에 없다는 신념으로 열악한 환경인 고향에 중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일본에서 설계도를 작성하고 건축자재를 직접 수송하여 지금의 조천중학교를 건립하여 국가에 헌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재일동포의 고국 사랑은 너무나 많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장**

이 광 형 서울대 재외동포교육지원연구센터 자문위원장



# 제21회 재외동포 문학상

2019. 4. 15(MON) ~ 6. 14(FRI)

한국시간 기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피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금년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교과서에 시인 윤동주가 “재외동포”로 소개되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재외동포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련기사 보기 '재외동포의 창' 2019년 3월호 내 OKF 뉴스 (<http://webzine.korean.net/>)

※ 재외동포 시인·독립운동가 윤동주(尹東柱, 1917~1945) 소개  
북간도 용정 출생. 20세에 조선으로 유학, 연희전문학교 졸업. 24세에 일본으로 가 유학 중 독립운동 죄목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 옥고를 치르다 27세에 서거했다. 건국훈장 독립장(1990).

## 응모자격

### 성인

- 거주국 내 시민권·영주권 취득, 또는 7년 이상 장기 체류한 재외동포

### 청소년

- 거주국 내 시민권·영주권 취득,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한 재외동포 청소년
  - 초등 부문: 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
  - 중·고등 부문: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 ※ 역대 재외동포문학상 대상(성인), 최우수상(청소년) 수상자는 동일 부문 응모 불가

## 접수방법

-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http://www.korean.net)) 통해 온라인 접수
- 코리아넷 공지사항 또는 팝업존 “제21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  
→ 하단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버튼 클릭 → ‘작품응모서식’ 다운로드 하여 첨부파일로 작품 제출

☐ 문의(이메일) :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문학상 담당자 앞  
[culture@okf.or.kr](mailto:culture@okf.or.kr)

## 공모 부문·주제

### 성인(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부문)

- 시·단편소설: 자유주제
- 체험수기: 이민과 정착 과정 속에서 겪은 본인, 가족, 친지의 체험담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청소년(중·고등, 초등 글짓기 부문)

- 주제(예시)
  - 3.1운동 정신과 나, 대한민국과 나
  - ‘쉽고 바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 감상평
  - 기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관련 주제

## 시상내역

- 시상내역: 총 30명 및 한글학교 2개교 선정, 총 상금 3530만원

### 성인(3개 부문) [시/단편소설/ 체험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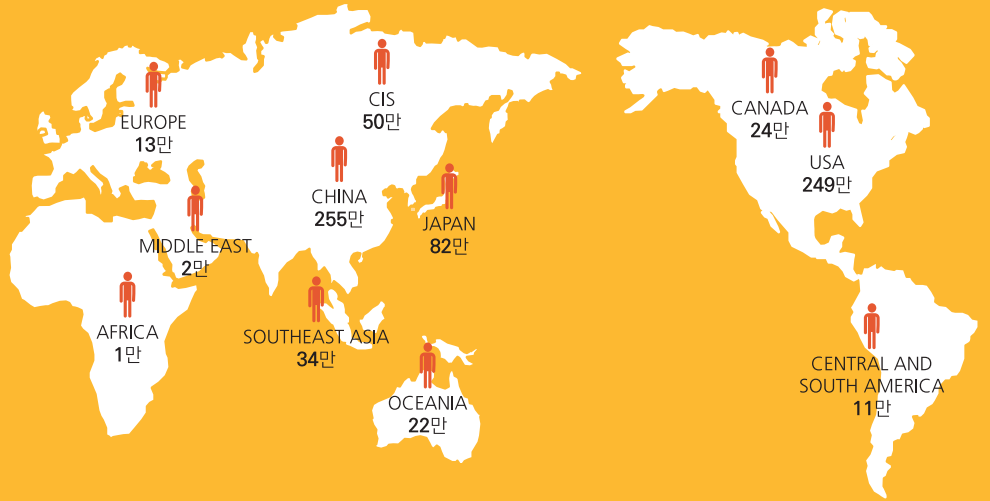
대상(3명) | 300만원, 상패 (부문별 1인)  
우수상(6명) | 200만원, 상패 (부문별 2인)  
佳作(9명) | 50만원, 상패 (부문별 3인)

### 청소년(2개 부문) [중·고등/초등 글짓기]

최우수상(2명) | 100만원, 상패 (부문별 1인)  
우수상(4명) | 50만원, 상패 (부문별 2인)  
장려상(6명) | 30만원, 상패 (부문별 3인)

### 한글학교

특별상(2개교) | 200만원, 상패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4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4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